

<서평>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의 의미를 찾아서

박은홍, 『불복종의 정치학: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 서울: 드레북스, 2024.

최 경 희*

I. 동남아 정치연구의 경종: 태국(타이)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흔히 동남아지역을 소개할 때, 대륙부와 해양부로 나누어서 언급한다. 대륙부에 위치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 국가와 해양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동티모르 6개 국가이다. 한국에서 동남아지역연구는 개별 국가를 연구단위로, 지역 전체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또는 지역을 하위 단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영역 측면에서 보면, 아세안에 대한 국제 및 지역정치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긴밀해진 경제관계로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연구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자 규모가 있는 사회문화 및 역사 연구는 꾸준히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비하면, 최근 동남아 정치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kalli@snu.ac.kr

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기적으로 있는 ‘선거’에 대한 의미 분석 등이 한국 동남아 정치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동남아 정치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하나는 연구자층이 두텁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륙부이든 해양부이든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 다시 말하자면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속 또는 ‘민주주의 퇴행’ 등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전개되면서 연구자들이 소위 신나서 연구할 만한 상황과 주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기억으로 한국에서 동남아 정치연구는 국가재원에 의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생산한 것이 2000년대 초중반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이후로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국에서 동남아 정치에 대한 연구는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오늘 주목하고 싶은 박은홍 교수의 『불복종의 정치학: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은 한국의 이러한 동남아 정치연구의 공백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 책이 한국에서 동남아 정치연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태국과 미얀마를 포함해서 홍콩, 대만 그리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터키 등에서 나타나는 민주화 요구 시위와 갈등, 불안정으로 인해, 민주주의 위기는 글로벌 화두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의 등장 이후 자유민주주의 본진에서 위기 담론이 제기되면서 그 파장이 더 커졌다(레비츠키·지블랫 2018). 이러한 상황들은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에 대한 연구로 나타난다. 신 경쟁적 권위주의(The New Competitive Authoritarianism)에 대한 연구(Levitsky and Way 2020), 선거권위주의와 같은 혼합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 등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다양성, 지속성의 원인 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박은

홍 교수는 본 저서를 통해 대륙부 동남아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얀마’와 ‘태국(타이)’의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 변동 그리고 특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즉, 양 국가의 권위주의가 변동하면서 지속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도전은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에서 동남아 정치연구가 대개 ‘사건사적’인 또는 ‘국면적인’ 접근이 주를 이룬다. 즉, 주기적으로 있는 선거에 대한 분석, 선거의 과정과 결과, 특징이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 측면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주로 분석하곤 한다. 그러나 박은홍 교수의 본 저작은 ‘사건사적’인 접근을 포함하면서도 ‘거시구조적인’ 또는 ‘역사적인’ 접근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대상으로서 ‘시간적 범주’가 상당히 길다. 미얀마의 경우, 독립에서부터 최근 2021년 군사쿠데타와 ‘봄의 혁명’ 그리고 현재까지, 태국의 경우는 1932년 입헌 혁명부터, 2023년 5월 총선과 현재까지를 역사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두 국가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기원, 특징, 쟁점 등을 역사구조적인 분석틀로 조망할 수 있는 성과를 갖고 있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본 연구의 가장 이론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도입부와 8장, 맺음말에서 시도하고 있는 미얀마와 태국의 비교연구라고 생각한다. 동남아지역 안에 있는 국가들은 ‘하나’의 지역 협력체 안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도 국가 간 상호작용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호작용의 이해를 위해서 역내 비교연구는 중요한 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연구를 위한 민주화 분석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두 국가의 비교연구를 시도하고, 지역단위 분석모형을 구축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맺음말로 이어져서 한국까지를 포함하여 정치체제 변동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불균등 속도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포괄해 내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특징 짓는데 ‘포폴리즘, 국가민족주의’ 그리고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론을 비판적으로 기술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큰 모멘텀인 미얀마와 태국의 청년운동 즉, 세 손가락 혁명을 제2의 반식민주의 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통찰은 미얀마와 태국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이의 시대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II. 왜 ‘불복종의 정치학’인가?

박은홍 교수가 이 책을 집필하고 구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14년 이후와 2021년 이후의 태국과 미얀마에서 청년들이 주도했던 ‘불복종운동’의 출현이 가장 큰 계기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불복종운동’ 세력의 등장은 태국과 미얀마에서 ‘이전’과는 다른 그 무엇의 의미, 그 새로움에 주목한다. 즉, 태국과 미얀마에서 국가민족주의와 그 밑바탕에 존재하는 포폴리즘에 휩싸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의 등장을 이들을 통해서 태국과 미얀마에서 발견한 것이다.

‘시민불복종’ 개념은 19세기 미국 사회를 살았던 헨리 데이브드 소로(Henry David Thoreau)가 쓴 『시민불복종(on the Duty of Civil Disobedience)』으로부터 기원한다. 이 책을 쓴 계기는 1846년 소로가 하루 동안 감옥에 수감된 경험으로부터 기인한다. 소로는 미국 정부가 일으킨 멕시코·미국 전쟁(1846~1848)에 반대하고, 노예제 폐지를 신조로 갖고 있었기에 6년 동안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고, 그 이유로 수감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소로는 미국 정부의 불의를 보면서, 개인적인 정의를 선택하여 인두세 납부라는 국민의무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 1949년 이 책을 출간하였고, 처음 제목은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었다. 소로는 그의 글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갈한다(조국 2022: 402-404). 소로의 ‘시민불복종’ 개념은 불의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불의를 저항할 수 있는 정치철학적 정당성을 만들어 내었고, 그 이후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학술적 개념이 되었다.

다시 박은홍 교수의 책으로 돌아가자. 박은홍 교수는 소로에 대한 언급보다는 존 로크의 저항권 옹호론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불복종 정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불복종정치는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청년 주도 반왕정 공화주의 혹은 반식민 민족주의 운동, 그리고 미얀마의 ‘88세대’, 태국의 ‘10월세대’ 등 다양한 역사적 형태로 등장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박은홍 교수가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2020년 이후 태국과 2021년 미얀마에서 등장한 ‘세 손가락’ 불복종 세력과 이전 불복종 세력 사과의 차이이다. ‘세 손가락’을 든 태국과 미얀마의 청년들에게 있고, 그들은 이전의 태국과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세력이라는 것을 연구자는 강력하게 주목하고 있다.

Ⅲ. 미얀마와 태국의 세 손가락

먼저, 미얀마의 사례를 보자. 2021년 군부쿠데타 이후 시민불복종 운동(CDM)을 주도했던 세력이다. 2011년 미얀마의 개혁개방 이후 정치적 개방을 경험한 청년세대이다. 이들은 ‘88세대’로 대표되는 이전의 미얀마 민주화 세력과는 차이를 갖는다. 거칠게 표현하면, 미

얀마 ‘88세대’의 실패로 인해 2021년 미얀마 군부 탕마도의 쿠데타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박은홍 교수는 미얀마 군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군사정부와 ‘군부 후견 민주주의’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군사정부는 군부가 국가정책을 완전히 통제하고, 각료를 군부 출신으로 채운다. 반면 군부 후견 민주주의는 군부가 민-군 관계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군이 민간 정치인들을 일정 정도 감독하는 정치체제다. 이 체제는 불완전한 또는 결합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1988년 8888민주혁명 시기 이후 등장한 아웅산 수지와 NLD를 중심으로 한 ‘88세대’는 미얀마 군부가 대중 통치기술로 다루었던 ‘국수주의’, ‘버마민족주의’, ‘수호자주의와 쌍을 이루는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게, 그들과 함께 2015년부터 집권세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군부 후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물론 집권 엘리트 세력 안에 있으면서 기존 헌법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였으나, ‘로힝야’ 사태에서 보여준, 아웅산 수지를 중심으로 88세대 정치세력은 그 본질적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군부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포퓰리즘도 문제이지만, 아웅산 수지의 신비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에 기반한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포퓰리즘 역시 한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수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한계를 뚫고 나온 새로운 세력이 바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시민불복종과 함께 등장한 미얀마 세 손가락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은 태국의 사례이다. 가장 최근 2023년 5월 총선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정치 신예 피타 람짜른랏(Pita Limcharoenrat)이 이끄는 전진당(MFP)은 2020년 불복종운동을 이끌었던 태국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하원 500석 중에서 152석, 그중에서 방콕에서는 33개 지역구에서 32개를 이기는 돌풍을 일으켰어도, 구세력의 억압,

법제도의 미비, 야당 연대의 실패 등 전진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타도 의원 신분이 정지되었다. 피타와 전진당 그리고 그 강력한 지지층인 ‘세 손가락’ 세력은 입헌군주제 개혁으로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의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왕모독죄와 입헌군주정의 개혁은 멀게는 1932년 혁명, 가까이에는 2006년 ‘붉은셔츠’의 등장과 연관된다. 2006년 붉은셔츠는 국왕모독죄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국왕-군부-관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해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은홍 교수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포스트-타신 시대의 붉은셔츠로부터 이어져 오는 대항 헤게모니 세력의 이념은 ‘자유주의’ 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태국의 세 손가락 세력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화 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IV. 자유주의자 세력으로서 세 손가락

정리하자면, 동남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세력이 강력하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읽힌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았을 때, 태국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세 손가락’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세력 등장이야말로 이후 진정한 동남아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창출했다고 설파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시 말하자면, 태국과 미얀마에서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과 세력의 등장은 좌우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해 온 국가민족주의와 그것과 쌍을 이루는 포퓰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두 개의 국가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본 책의 381쪽에서 “이 책은, 특히 포퓰리즘의 본질인 정치적 부족

주의에 의존한 민주주의 한계와 이 한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두 나라 청년들의 불복종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고자 했다.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들 두 나라의 기득권 세력에게 자유주의 혹은 공화주의는 불온한 용어다. 반면 포폴리즘은 비자유주의적 국가민족주의와 친화력이 높다. 정치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포폴리즘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강고한 지지층을 갖는 포폴리스트가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포폴리즘은 탈식민화 과정에서, 새로운 민족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효한 정치이념이자 기제로 자리잡았다”고 필자가 보기에 이 문구에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V.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박은홍 교수가 본 저작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방향에 대해서 서평을 쓰는 이의 고민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도 ‘자유주의, 공화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영역이다.

첫째, 박은홍 교수는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이 주도한 불복종운동은 배타적 국가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385쪽) 그리고 “리완유는 싱가포르가 경제 강국으로서의 비상에 성공하자 이를 배경으로 문화상대주의의 전형인 아시아적 가치담론을 띄웠다. 아시아적 가치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좌우파 국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국가민족주의의 한 유형이다. 서구를 적대시하면서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왜곡된 시선을 의미하는 오리엔탈리즘을 비난하지만, 역으로 서구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갇히는 모습을 보인다”(385쪽). 즉, 미얀마와 태국의 정치적 자유주

의 불복종운동은 ‘아시아적 가치’에 도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매우 고민되는 지점이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대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면서 제기되었다. 여기서 그 쟁점, 과정, 의미를 다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아시아적 가치’를 부각하는 것이 국가민족주의의 한 유형일수는 있지만, 전부일수 없기 때문에, 작은따옴표 속에 있는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를 구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시아적 가치논쟁에는 무엇이 보편인지 그리고 무엇이 특수인지 분석해 내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구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에 갇히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아시아인, 아시아 가치, 아시아 문화’ 등은 여전히 별도의 화두로 제기되고 연구되고 논의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2003년 아세안공동체 구축 전략을 세우고, 관련하여 ‘아세안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대략 15년 이상의 시간 소요 끝에 2020년 정상회의에서 The Narrative ASEAN Identity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 문서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 시기까지 아세안인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가치를 두 개념틀-Inherited Values와 Constructed Values-로 담아내고 있다. 이 문서는 아세안이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떤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세안의 가치, 동남아의 가치, 아시아의 가치 등은 그 자체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둘째,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동남아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이 또한 매우 복합적인 논의주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자유주의’가 전제되고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박은홍 교수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한다. 서구에서 ‘자유주의’가 신분적 예속과

억압을 극복하고, 천부인권사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매우 강력한 이념으로 사용되었고, 이로써 ‘동등한 개인’의 등장에 기초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화주의(Republic)’는 역사적으로는 로마공화정을 시작으로, 의미적으로는 정치공동체의 공공성(the public)의 구성과 실현과 연관되고, 그래서 공화주의의 구현은 방법론적으로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와 연동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남아 민주주의를 논한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동남아의 민주주의는 서구와는 다를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박은홍 교수가 본 저작에서 미얀마 군부와 태국의 군부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미얀마식 민주주의’나 ‘태국식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남의 민주주의는 서구와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군부’와 태국 ‘군부’의 지배력을 깨는 저항으로서 자유주의와 헌법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태국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태(ideal type)가 서구가 이념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남아 민주주의는 서구와 다를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이념태를 ‘자유민주주의’ 하나만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비자유민주주의’로 이분법적으로는 구분하는데 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유민주주의’ 외에도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연방민주주의’, ‘뻘짜실라민주주의’, ‘이슬람민주주의’ 등 다양한 민주주의 이념태를 개방하여 동등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 위기 현상을 돌파해 낼 수 있는 이론적 태도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의’와 ‘직접’ 민주주의 대립조차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순환되지 않는’, ‘선출되지 않는’ 지배세력의 이익을 정당

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태는 다양하게 설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박은홍 교수의 최신 저작인 『불복종의 정치학: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은 한국에서 동남아 정치연구를 위한 중요한 역작으로 남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동시대 연구자와 후학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동남아 정치연구에 관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쟁점들이 다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정치연구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한국에서 동남아정치연구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본 저작의 출간을 계기로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박은홍. 2024. 『불복종의 정치학: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 서울: 드레북스.
- 이승환 외. 1999.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 스티븐 레비츠키 · 대니얼 지블렛 지음.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서울: 어크로스.
- 조국. 2022. 『조국의 법고전 산책: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서울: 오마이북.
- Levitsky, Steven and Lucan Way. 2020. “The New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The Journal of Democracy* 31(1): 51-65.
- The Narrative ASEAN Identity The Narrative of ASEAN Identity - ASEAN Main Portal(검색일: 2024년 5월 18일)